

2017-2 글쓰기 중간평가

담당교수	학과	학번	성명
김정근	리더	201721101	박성범

1. 다음의 개요의 문제점을 네 가지 이상 지적하시오. (5점)

주제: 강풀의 <아파트>에 나타난 현대인의 공포와 우울

- 서론: 웹툰과 현대인의 일상성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 <아파트>에 나타난 현대인의 공포감
 - 관계 단절에서 오는 불안
 - 아파트라는 공간으로부터 비롯된 소통의 단절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 파괴
 - 상처를 받는 동시에 가해자가 된 피해자
- 서사적 장치를 활용한 공포감의 강화
 - 진실한 화자의 부재
 - 사건 미스터리의 다각도적 구성
- 결론

2.3번의 하위항목이 한 개 없음.

1번 화제식으로 통일되지 않음.

2.3번이 상위 항목인 2번 '현대인의 공포'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음.

2.2번 '소통 단절'이라는 주제는 2.1번 '관계 단절'에 포함될 수 있음.

2.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오. (각 1점)

(1)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이 비슷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가급적 애용하도록 하자.

(2) 재해 대책 본부는 이번 중부 지방 홍수로 현재까지 재산 피해가 5백8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3) 이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우리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4) 진정한 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5) 머리핀으로 머리를 고정시킨 후에 화장을 하세요.

3.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를 골라 맞게 고쳐 쓰시오. (각 1점)

(1) 고향친구를 오랫동안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꽃을 피웠다.

(2) 김 선생이 뒤통 부서로 옮겨 달라고 했다.

(3) 많은 청중 앞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익숙치 않아 누구나 긴장하게 마련이다.

4. 다음 문장의 띄어쓰기를 고쳐 다시 쓰시오. 띄어쓰기 부분에 V 표시를 하시오. (각 1점)

(1)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인데 가까운데가서 얘기하자.

(2)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털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

5. 다음 사항들을 외주로 작성하시오. (각 1점)

(1) '비전코리아'라는 출판사에서 1989년에 간행한 '비전백과사전'에서 '신화'라는 항목을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신화", 비전백과사전, 비전코리아, 1989.

(2) Jonathan Z. Smith라는 사람이 쓰고 방원일이 번역한 '자리잡기'라는 책의 27쪽에 나오는 어구를 인용하였다. 이 역서는 2009년에 '이학사'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Jonathan Z. Smith, 『자리잡기』, 방원일 역, 이학사, 2009, 27쪽.

(3) (2)번 책 55쪽에 나오는 어구를 인용하였다.

귀의 책, 55쪽.

(4) 2010년에 '웅진출판사'에서 간행된 '중국신화사'라는 책의 59쪽부터 61쪽의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이 책은 '위안커'라는 중국인 작가가 2007년에 낸 '중국신화사'를 김선자와 이유진, 홍윤희 세 사람이 번역한 것이다.

위안커, 『중국신화사』, 개신과, 이유진, 홍윤희 역, 웅진출판사, 2007, 59~61쪽.

(5) 정수진이 쓴 '무형문화재의 창출'이라는 글의 298쪽부터 300쪽의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이 글은 남근우가 편집한 '동아시아의 근대와 민속학의 창출'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이 책은 '민속원'이라는 출판사에서 2010년에 간행되었다.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창출』, 『동아시아의 근대와 민속학의 창출』, 민속원, 2010, 298~300쪽.

6. 아래 지문에서 마지막 단락을 400자 이내로 완성하되 '일의 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술하시오. (5점)

사람들은 점점 강박적으로 속도를 추구한다. 문제는 이런 속도에 대해 비판적 성찰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빨라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부터, 속도를 중시하는 문명의 패러다임은 과연 문제가 없는가? 인간은 왜 속도를 추구하는가? 등등 여러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빨라져만 가는 속도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세기 말 국내외에서 '느림'을 주제로 하는 전시들이 열렸다. 그러나 그 전시들이 얼마나 느림의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했는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그런 전시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의 속도가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시간이 정지해 있는 종교적 초월이나 명상의 세계를 설정하는 것도 해결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현재의 스피드가 결국은 죽음을 향한 스피드, 그래서 죽음에 더 빨리 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교통수단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규모가 더 큰 사고의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문제는, 일처리 속도가 빨라져도 일은 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수진

	모	리	리		일	처	리	가		빠	라	질	속	록		개	인	이	
치	리	해	야		하	는		일	의		영	은		더		늘	미	나	기
대	문	에		결	코		일	를		쉽	게		하	는		스		없	다.
사	리			전	체	로		보	편		더		많	은		일	를		빠
게		처	리	학		속		일	어		문	두	게	게		이	익	이	
되		것		같	지	만,		실	제	로	는		그	럼	지		안	다	는
것	이	다.		말	을		처	리	하	는		개	개	인	에	게		하	는
되	는		일	의		영	이		더		많	아	질	미		아	라		영
복		강	조	는		더	욱		가	럼	원	다.		또	한		빠		는
처	리	매		대	한		만	박	감	이		심	해	져		사	람	들	은
보	했	해	전	다.			더		나	은		리	래	를		억	해		
빨	리	빨	리	를		외	했	지	만		그		결	라	는		불	행	이
영	던		것	이	다.		실	제	로		과	도	한		영	덕	로		자
살	하	거	나		라	로	사	하	는		현	대	인	이		많	다	는	
사	실	은		더		이	상		새	로	는		일	도		아	디	다.	
죽	지		영	은		현	대	인	들	은		과	도	한		영	덕		속
에	서		자	신	의		존	재	를		지	위	가	려		거	대	한	
기	계	안	의		복	품	으	로		소	비	된	다.		일	처	리		속
도	를		늘	여		더		많	은		일	을		처	리	하	는		것
이		인	간	의		존	재	로	다		강	조	시	되	려		세	상	은
을	아	간	다.																

4.5